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2
AUTUMN
제61호

출입국 브이로그
이민특수조사대의 VLOG

클릭! 핫이슈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현장

출입국 쯤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는
사진가”

브라질 출신
리아 마우러

KOREA
IMMIGRATION
SERVICE

제3화: 진정한 용기

스스로를 향한 믿음이 만드는 용기

흔히 강한 사람이 용기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용기를 내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다. 솔하게 흔들리고
넘어져도 나를 믿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다.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통해 스스로를
믿는 용기의 가치를 돌아본다.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얻은 깨달음

미국 작가 라이먼 프랭크 바움(Lyman Frank Baum)의 동화 <오즈의 마법사>는 영화, 뮤지컬로도 제작되어 100년 이상 사랑받고 있는 명작이다. 오즈라는 나라에 떨어진 소녀 도로시는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위기를 겪지만, 용기와 지혜, 우정으로 이겨내고 집으로 돌아간다.

“너한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자신감이야. 생명이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위협에 처하면 두려워하기 마련이지.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위협에 맞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란다. 그런데 넌 그런 용기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잖아.”

도로시의 여행에는 똑똑한 뇌를 갖고 싶어 하는 허수아비, 따뜻한 심장을 갖고 싶은 양철나무꾼, 용기를 얻고 싶은 사자가 동행한다. 모습은 다르지만 결핍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 이들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스스로를 마주하고, 자신이 원하던 것이 이미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내면에서 발견하는 용기

우리는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오즈에 떨어진 도로시처럼 살아가면서 솔한 위기를 겪는다. 그럴 때면 슬기롭게 이겨내지 못한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절망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지혜와 용기, 따뜻한 마음은 타인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스스로를 굳게 믿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공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들이 울긋불긋 아름다운 새 옷으로 갈아입는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 한가위 명절,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친지와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함께 보름달을 보며 소원도 빌어보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저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도 반갑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을 축하하고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8월 11일 개최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제주도까지 확대 시행하여 안전한 국경관리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첨단분야 인턴 비자 제도를 8월 8일에 신설하였고, 10월 4일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의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광활성화 정책 등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인정책 개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ear readers,

Autumn has arrived and the trees are starting to put on new clothes decorated with brilliant fall color.

I hope you enjoyed the Chuseok holiday with your family members and loved ones you haven't met during the pandemic and made a wish upon the full moon according to our tradition.

With the beginning of a new season, Korea Immigration Service has a plenty of great news to share with you.

In honor of the 77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Liberation Day, a ceremony was held on August 11 in which the descendants of patriots who fought for Korean independence were granted South Korean citizenship. It was a way to remember the sacrifice and dedication invested by patriots who fought for independence overseas and to celebrate the moment when their descendants become Korean citizens.

Starting from September 1,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K-ETA) system has been expanded to apply to Jeju Island, paving the way for a safer way of managing our borders.

On August 8, an internship visa program for prospected interns was newly introduced for those wishing to work in high-tech sectors. Also on October 4, a pilot project for issuing region-specific visas was implemented to support overseas talents, who wish to settle in areas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in the country.

We will continuously be committed to designing immigration policies that are widely accepted by the Korean public through developing better policies for foreign residents that are beneficial for the nation. These policies include measures to respond to population decline faced by regional communities and policies to support tourism.

Lastly, as season changes, I wish you to stay healthy and strong.

Thank you.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

Commissioner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Jaeyoo
Lee

Contents

2022. AUTUMN / Vol. 61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유튜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카카오 채널

http://pf.kakao.com/_gxbpPT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2년 9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번호 02-2110-4019

기획·편집·디자인 이루다플래닛(1566-7699)



www.immigration.go.kr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COVER STORY

제3화 [진정한 용기]

02 공감 동화 : 오즈의 마법사

용기는 다른 누구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는 것입니다.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통해
스스로를 향한 믿음이 만드는 용기의
가치를 발견해보는 건 어떨까요.



With

함께 만드는 공존

- 06** 랜선 여행
국내 영화·드라마 촬영 명소
K-콘텐츠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시간
- 08** 정책 포커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우수 외국인 정착 지원
- 12** 함께, 행복하게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는 사진가”
브라질 출신 리아 마우러
- 16** 정책 인사이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
- 18** 출입국 브이로그
이민특수조사대의 VLOG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문혜윤 주무관

ON

서로 통하는 공존

- 22** 출입국 zoom
다양한 업무를 아우르는 올라운드가 모인 곳,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
- 26** 클릭! 핫이슈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다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현장
- 30** 글로벌 트렌드
K-기술력이 꽃피운 세계의 랜드마크
- 32** 오늘 뭐하지?
우리 집에 숲 가꾸기, 홈가드닝 트렌드
- 34** 출입국,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나요?
- 35** NO.1 공존인을 소개합니다
- 36** KIS NEWS
- 38** EVENT
공존 공감 & 퀴즈 타임



사진=쇼박스

국내 영화·드라마 촬영 명소

K-콘텐츠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한 '2021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3만여 명 중 47%가 향후 3년 내 한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BTS, 블랙핑크,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가 쏟아 올린 세계인들의 관심이 한국 방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 셈. 코로나19로 인해 잠겨 있던 각국의 빛장이 서서히 풀리고 있는 지금, 인기 드라마와 영화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국내 명소에 방문해 K-콘텐츠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사진=보령시청

영화 <택시운전사> 촬영지

1 80년대 정취 가득한 간이역 보령 청소역

충남 보령시 청소면에 위치한 청소역은 장항선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로, 근대 간이역사의 건축 양식이 잘 드러나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청소역 앞에는 옛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작고 오래된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이곳에서 1,2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택시운전사> 촬영이 이루어졌다. 역 앞에 영화 촬영을 기념하는 포토존이 있어, 영화의 의미와 함께 80년대 추억을 되새겨볼 수 있다.

📍주소 : 충남 보령시 청소면 청소큰길 176



2 문화예술공간으로의 재탄생이 기대되는 옛 장흥교도소

2015년까지 실제 교정시설로 이용된 옛 장흥교도소 부지는 K-좀비물로 세계적 인기를 거둔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좀비를 피해 도망친 시민들의 대피소로 등장했다. 그 밖에도 <비밀의 숲>, <슬기로운 감빵생활>, <피고인> 등 많은 작품들의 촬영지로 활용되었다. 현재는 2024년 준공 목표로 문화예술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있어, 향후 더 흥미로운 체험이 기대된다.

주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98

3 신비로운 매력을 간직한 숲 고성 장산숲

조선 태조 때 조성된 숲으로 녹음과 연못이 어우러져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숲이다. 선조들이 낚시와 산수놀이를 즐긴 곳으로, 주로 사극 작품 촬영지로 활용되었다.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과 <녹두전> 등에 등장했는데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한복을 입고 사진 촬영 체험을 할 수 있다. 장산숲이 위치한 장산마을은 2000년대 새로운 문예장르로 등장한 디카시(디지털카메라詩)의 발원지로, 매년 국제디카시페스티벌이 개최되는 곳이다.

주소 : 경남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 230-2



사진=고성군청



사진=남원시청

4 세월의 역사(歷史)가 켜켜이 쌓인 역사(驛舍) 옛 서도역

전라선 산성역과 오수역 사이에 위치한 간이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역사다. 2002년 역사를 신축 이전하면서 폐역이 되었으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과 영화 <동주> 등의 촬영지로 활용되었다. 최명희 작가의 대하소설 <혼불>의 주 무대이기도 한 옛 서도역사는 과거의 시간이 멈춰있는 듯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현재는 각종 공연과 혼불문학 신형 길축제 등이 펼쳐지는 문화공간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주소 : 전북 남원시 사대면 서도길 2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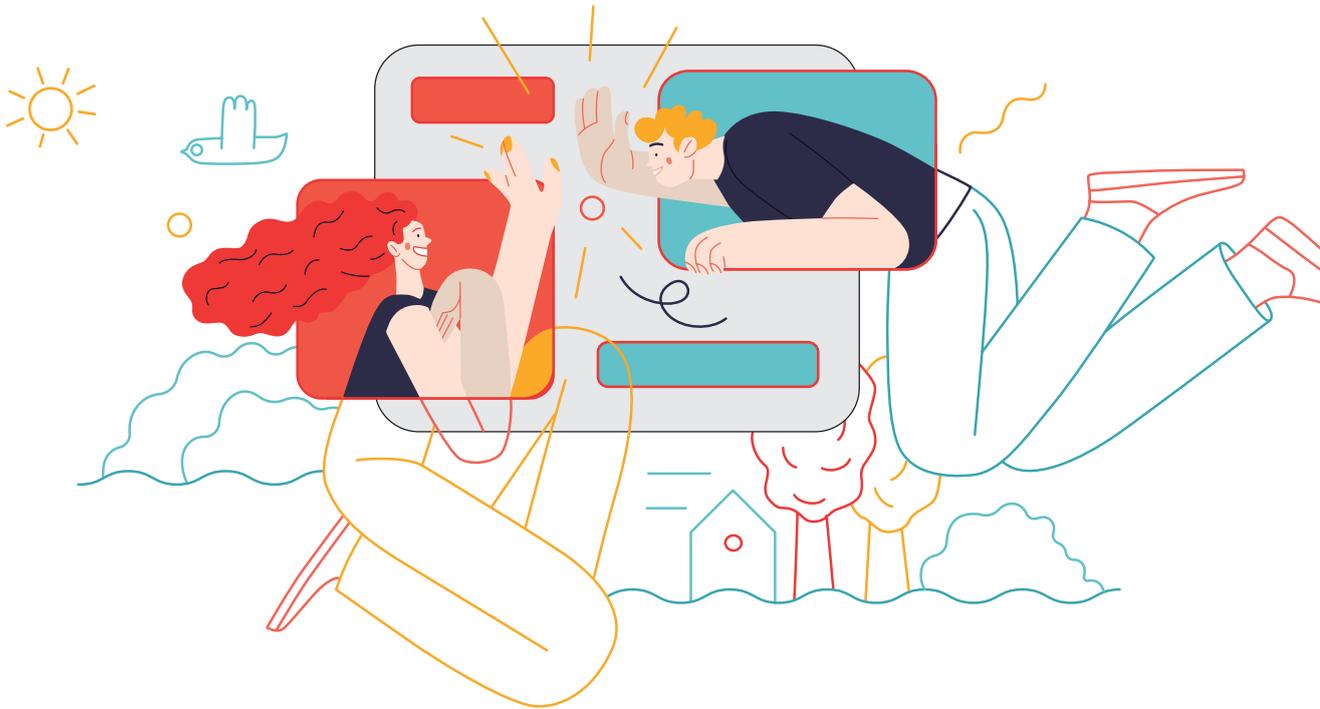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우수 외국인 정착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인구위기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 협업으로 인구감소 지역 외국인 주민 확보와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 배경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수도권 거주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非)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수보다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도 같은 해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을 목적으로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 및 정착하는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방은 지방대로 인구유출과 경제 활력 저하 문

제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집값 폭등, 인구 과밀 등의 문제를 겪으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 소멸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신설했다.** 이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고 정착을 장려해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인구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활력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수한 외국인을 지역에 유치·정착시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주기 위해 법무부는 2022년 10월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사업 목적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합법적으로 입국 및 체류하는 우수한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및 이웃 주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의 인력 유출 및 인구 소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

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 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가 심사를 거쳐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 등을 고려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한다.

법무부는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수요에 적합하고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Two Track 이민정책

법무부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의 지역정착 **체류특례** 부여

지자체 지역별 **필요인재 규모 파악**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 우수인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

동포가족

가족 단위 지역정착



지역특화형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



Regional Specialized Visa Pilot Project

운영기간

2022. 10. 4. ~ 2023. 10. 3. (1년)

※ 단, 정부정책 또는 지자체 수요에 따라 추후 추가모집 등 운영 세부사항이 변동될 수 있다.

지자체 선정 결과

광역지자체

- 충청남도(보령시, 예산군)
- 전라북도(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 전라남도(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 경상북도(영주시, 의성군, 영천시, 고령군)

기초지자체

- 경기도 연천군 / 경상남도 고성군



신청자격

우선적으로 지역 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의 일정 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 발급하고,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한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확인 (www.hikorea.go.kr)

구분	세부내용	선정규모
지역 우수인재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비자 쿼터 총 500명 내외
동포 가족	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인구감소지역 거주 외국국적동포와 가족(배우자·자녀)에게 체류 특례 부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자체 인구 수요 고려 후 결정





Let's learn more about a project to issue a region-specific visa



To address the issues of an ageing population while promoting balanced growth across regions, national governmental bodies and local governments have joined forces to attract foreign national residents to regions that have seen significant decline in its population and to assist such foreign nationals in settling well into Korean society.

A multi-layered approach to design a policy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Ministry of Justice

Selection of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the pilot project; Granting of special status of stay in a particular region to foreign talent, foreign nationality Koreans and their family members for their settlement in Korea

Local governments

Identification of the number of talents needed in each region; Operation of programs to help foreign nationals settle into Korean communities

Ministry of Justice

Collaboration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Local governments



Outstanding talents in various regions

Policies to outstanding talent needed by regions

+



Families of foreign nationality Koreans

Policies that encourage settling into regions in units of families

Operation of a program for the settlement of foreign nationals, tailored to each region

Eligibility

Priority shall be given to outstanding talents in the region, as well as families of foreign nationality Koreans. Foreign nationals that meet the conditions for the pilot project shall be issued in advance a Resident (F-2), Overseas Korean (F-4) visa on the conditions that the individual reside and work in the region for a certain period. If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had been presented are violated, the visa shall be annulled.

www.hikorea.go.kr

	Details	Number of individuals selected
Foreign Talent in Regions	Foreign nationals recommend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aking part in the pilot project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change their status to a resident visa (F-2) and take part in programs that help with settling into Korea.	Visa quota to be set at around 500 individuals
Overseas Koreans and their Family Members in Regions	Ethnic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ies and their direct family (i.e., spouse or children) residing in areas that have seen significant demographic decline and that have been selected to participate in the pilot project shall be granted a special status of stay and an opportunity to take part in programs that help with settling into Korea.	To be determined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needs of each local government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는 사진가

브라질 출신 리아 마우러



한국과 정확히 12시간의 시차가 있는 곳,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온 리아 마우러. 고국에서 개최된 한국어 말하기 대회 우승을 계기로 한국 대학원에 국비 장학생으로 진학한 그는 사진과 홀로그램을 연구하며, 순간의 아름다움을 영원으로 만들고 있다.

운명을 바꾼 세종학당

리아 마우러(이하 리아)가 나고 자란 브라질 동남부 캄피나스는 ‘브라질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한 대도시이다. 예술학도였던 리아의 운명은 대학교 1학년 때인 2015년, 캄피나스에 세종학당이 개관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다른 많은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과 브라질 문화는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이나 서로 너무 다르거든요. 브라질에는 역사 드라마가 없는데, 한국의 사극 드라마를 보고 한국 전통문화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리아는 캄피나스 세종학당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씩 익혔던 한국어 실력이 세종

학당을 만나자 훌쩍 나아올랐다. 그 결과, 2017년 캄피나스 세종학당에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의 성과였다.

“당시 한국 여행이 부상으로 주어진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1등을 한 덕분에 한국에 와서 일주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 방문한 한국에서의 일주일엔 더 큰 꿈을 품게 해준 시간이었다. 브라질로 돌아간 리아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의 국비 전액장학제도인 AMA+에 대해 알게 되었다. AMA+는 전 세계의 우수한 예술 인재를 유치하는 해외 예술계 인력 양성 사업이다. 리아는 한예종 사진·홀로그램 석사 과정 장학생이 되어 2020년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사진·홀로그램은 세계를 바라보는 창문

리아가 한예중 진학을 결심한 것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를 넘어 사진 외에 홀로그램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홀로그램은 레이저광으로 이루어지는 간섭 줄무늬를 필름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입체 사진과 유사하다. 평면적인 사진과 달리 모든 각도에서 작품을 관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리아는 홀로그램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기를 좋아한다. 다양한 각도에서 이리저리 홀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이 꼭 춤추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

“제가 느끼는 사진 매체의 매력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사체를 찍더라도 사진가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나요? 그리고 홀로그램은 창문과 같아요. 저는 주로 추상적인 이미지의 작품을 만드는데, 홀로그램이 새로운 세계,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창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브라질에서 핀홀(pinhole)이라는 카메라를 직접 만든 경험도 있고, 전시회도 몇 차례 개최했을 만큼 사진과 홀로그램 공부에 폭 빠져 있는 리아. 그러나 과에서 유일한 외국인 학생인 만큼 벽에 부딪힌 경험도 적지 않았다.



리아가 만든 카메라



사진 매체의 매력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사체를 찍더라도 사진가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꽤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답답한 적이 많았어요. 특히 첫 학기 때는 정말 어려웠는데, 교수님들이 수업 이틀 전에 ppt 자료를 보내줘서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어요. 동기들도 많이 도와줬고요. 덕분에 지금은 한국어 실력이 늘어서 토론에도 참여할 수 있고 한국어로 논문도 쓰고 있어요.”

한국어 실력자로 퀴즈쇼 출연까지

공부와 논문 준비로 바쁜 나날이지만 리아는 한국관광공사 서포터즈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한국 곳곳을 여행하고, SNS에 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무려 국내 70여 개 도시를 여행했다는 그는 한국에 외국인들이 주로 여행하는 서울, 부산, 제주 외에도 안동, 해남, 포천 등 가볼 만한 도시가 많다고 강조했다.

리아가 한국에서 경험해본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은 지난 6월 KBS1 <우리말 겨루기>에 출연했던 것이다. 다른 세종학당 출신 학생들과 함께 출연한 리아는 1등 상금으로 새 사진 장비를 사고 싶다는 의지를 불태웠지만 아쉽게 탈락했다. 그런데 놀랄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다.



“대전에 사는 한 시청자 분이 <우리말 겨루기>를 보고 제게 카메라를 주고 싶다고 방송국에 연락을 하셨어요. 카메라도 3대나 주시고 삼각대와 플래시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리아의 <우리말 겨루기> 출연은 그의 고향에서도 큰 화젯거리였다. 가족과 친구들이 한국 방송에 나와 브라질 전통춤인 삼바를 소개하며 직접 시범을 보이는 리아의 모습에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다고.

“사실 저는 춤을 잘 추지 않는데 다들 제가 TV에 나와 춤을 추는 게 재미있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주더라고요. 다음에 또 출연 기회가 생기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1등을 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한 번 가려면 이들이 꼬박 걸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온 리아. 문화도 환경도 너무 다른 곳에서 와 불편한 일도 있을 법 한데, 매사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내고 있다. 그는 한국 생활의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도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있으니 문제 없다”며 웃음지었다. 리아는 한국의 매력으로 사람, 특히 ‘아주머니’를 꼽았다.



“한국 아주머니들은 무척 친절하고, 외국인이 한국어를 할 줄 알면 더 잘해주세요. 밥 먹었냐고도 자주 물어봐주시고 잘 챙겨주시기도 하고요. 한국의 정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분들이죠.”

리아의 고향 브라질은 지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다. 리아의 사촌들은 K팝 아이들에 열광하고, 조부모님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푹 빠져 있다고 한다. 그는 반대로 브라질에 대해 잘 모르는 한국인에게 “브라질은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나라다. 그래서 모든 외국인들을 환영한다. 날씨도 좋고, 바다도 무척 예쁜 곳”이라며, 남미 여행시 브라질을 꼭 방문해볼 것을 권했다.

리아의 다음 목표는 박사 과정 진학이다. 브라질에는 홀로그램을 깊이 있게 공부할 학교가 많지 않아 한국에서 연구를 이어갈 계획. 전 세계를 돌며 자신의 작품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교수가 되어 고국에서 자신과 같은 홀로그램 전문가를 길러내는 훗날을 꿈꾼다. 리아의 작품 세계처럼 아름답게 펼쳐질 그의 미래가 무척이나 기대된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 배경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 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반도체·IT·바이오 등의 신성장 산업 부문에서는 기술혁신을 이끌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경제·문화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졸업 전 한국 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들이 많아졌고 국내 기업 또한 이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였지만, 이를 허용하는 비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기존에는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과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만 국내 기업 인턴 활동이 가능하며 법무부는 미래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2년 8월 8일부터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했다.

*첨단기술의 범위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IT·기술경영·나노·디지털전자·바이오·수송 및 기계·신소재·환경 및 에너지 등

기대 효과

이번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을 통해 미래의 우수 인재에게 한국 기업 근무 및 한국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에게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국내 첨단기술의 성장 동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당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 유학이나 취·창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자 취득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신성장 산업 인력 문제 해소에 기여한다.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첨단분야 외국인 인턴을 채용할 수 있게 하여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국민 고용인원 충족이 어려운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설립 후 3년까지 고용 제한을 유예하여 기업의 초기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적용 대상

초청 기관	민간 기업	① 첨단기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②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기업 ③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④ 벤처기업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외국인	• 해외 우수대학*의 첨단기술 분야 전공 재학생 • 졸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 *Time誌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본교만 해당)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확인 (www.hikorea.go.kr)

A new visa will be issued to prospected interns eager to work in high-tech sectors as part of the government's bid to strengthen corporate competitiveness

The background of introducing a visa program for prospected interns to work in high-tech sector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established a new visa program to attract foreign national interns currently studying in fields relevant to high-tech industries* sector, who meet certain criteria, including enrollment at selected universities overseas.

Over the years, with the improved international status of Korea, many foreign national students wished to work as an intern in Korea before graduation. There has also been matching demand from IT corporations for such interns. But a lack of appropriate visa programs to accommodate such demand made it a challenge to lure foreign talent as interns. The existing law allowed internships in Korea to foreign nationals who have already acquired a degree, and only internships related to their academic activities to foreign national students registered with universities in Korea. But opportunities had been blocked to students who were currently registered with universities abroad who wished to work as an intern at a Korean company.

* Definition of 'high-tech industries' : High-tech industries under Article 5 of the Industry Development Act are industries associated with semiconductors, IT, technology management, nano-technology, digital electronics, biotechnology, transport, machinery, new materials,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ergy.

Anticipated benefits

The new visa program for interns working in high-tech industries is expected to offer promising talents an opportunity to live and work in Korea, which can help attract them first ahead of competing corporations or countries. Moreover, the visa program is expected to serve as a helpful intermediary in the case that the Korean corporation forays into international markets.

If the foreign national who entered Korea with such a visa wishes to seek full-time employment or start his/her own business in Korea, he/she shall be given preference in the visa application review. This will also help with attracting foreign students to Korean universities, as well as help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rporations in attracting talent. However, to protect the job market of Korean nationals, only up to 20% of available posts in internships shall be offered to foreign nationals in high-tech industries. As for venture companies that have difficulty in filling all their posts with Korean nationals shall be given a waiver of three years during which the restrictive quota shall not apply, in a bid to promote their growth.

Eligibility

Inviting institution	Private corp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Korean companies listed on the stock exchange, with high-tech R&D facilities ② Corporations with an affiliate research institute (i.e., department dedicated to R&D) ③ Corporations designated as 'high-tech companies' ④ Venture corporations
	National or public research institution	Specific research institutions,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ions in which the government has made an investment
Foreign natio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udents who are currently enrolled at selected universities* overseas, who are majoring in high-tech sectors • Recent graduates (of up to three years since graduation) <p>*Selected universities are defined as institutions included as Top 200 universities in the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or Top 500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This applies to main campuses only.</p>	

※ For details, please visit the official website (www.hikorea.go.kr)



이민특수조사대의 VLOG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 조성, 우리가 앞장선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문혜윤 주무관

이민특수조사대는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출입국사범, 밀입국자 및 알선 브로커 등의 검거와 송치,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외국인 검거 등의 대테러 활동 등을 펼치는 부서로 서울과 부산에 각각 설립되어 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소속으로 출입국사범 검거를 위해 주야장천 노력하는 문혜윤 주무관을 만나, 이민특수조사대의 하루를 들여다본다.





"이민특수조사대
팀원들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돈독하는 사이를
자랑합니다."



AM 9:00

오늘도 파이팅!

이민특수조사대의 일상은 매일 조금씩 다릅니다. 출입국사범의 검거 및 송치 업무를 하는 만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죠. 돌발적인 외박이나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시인 9시에 출근합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이민특수조사대 사무실이 위치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로 출근 완료!



AM 10:00

유치장 신병 인계 및 조사

오전에는 유치장에 있는 신병을 부산지방검찰청 호송출장소로 인도합니다. 조사실에서는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모두 합해 한 달에 평균 20명 정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외국인을 조사하게 될 경우에는 통역사를 대동해서 진행합니다.



AM 11:00

팀원들과 함께 하는 점심시간

오늘은 오후에 계획된 일정이 있어 조금 이르게 점심을 먹었어요. 휴식시간에는 테라스에서 부산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팀원들과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저희 팀은 업무 특성상 같이 외박을 하거나 원거리 출장 등이 잦은 편이라 서로 믿고 의지하는 돈독한 사이를 자랑합니다.



V-log

“빠르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성하는 각종 브로커들을 검거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9 hours



야외 탐문조사

이민특수조사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탐문조사인데요. CCTV 영상이나 SNS 분석, 디지털 기기 포렌식 증거자료 분석, 잠복수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합니다. 오늘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자의 주거지 탐문조사를 위해 외부 CCTV를 확인하러 나왔어요. 며칠 동안 팀원들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하거나 잠복하는 고생 끝에 피의자를 검거하면 무척 뿌듯합니다.



CCTV 영상 분석

출입국사범 검거를 한다고 하면 외근만 할 것 같지만 CCTV 영상 분석, 서류 작업 등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도 다양합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언제 무슨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녁이나 주말에 개인 일정을 취소하고 갑자기 출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한데, 팀원끼리 서로 돕고 배려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팀원들과 회의



팀원들과 회의

부산이민특수조사대는 총괄팀과 수사 1, 2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평소에는 팀별로 사건을 각각 진행하지만 대규모 출입국사범 검거 시에는 다 같이 움직이기도 해요. 최근에는 거제 외항에서 선원 7명이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하기 위해 조력자와 접촉하여 은신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검거 활동에 착수해 반나절 만에 전원 검거 후 구속 송치한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PM 2:00 CCTV영상분석



PM 5:00

과장님께 수사보고

외근 관련 내용을 정리한 수사보고를 작성해 과장님께 결재를 받습니다. 과장님께서서는 고생하는 팀원들을 위해 항상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저희 팀원들 또한 적법한 절차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M 6:00

즐거운 퇴근!

오늘은 다행히 야근이 없어서 정시에 퇴근합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더욱 빠르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불법 체류 환경을 조성하는 각종 브로커들을 검거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의 하루를 지켜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혜윤 주무관의 한마디

“역량 집중을 통해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일하다 보면 외근과 야근이 잦고 고생도 많지만, 팀원들의 노력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일조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량을 집중해서 대테러 등 국제범죄 관련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여 국내 체류질서 확립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 파이팅!





다양한 업무를 아우르는
올라운더가 모인 곳,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

‘필방미인’, ‘다재다능한 사람’을 뜻하는 올라운더(all-rounder)가 한 명도 아닌 열한 명이 모였다.
민원인을 위한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부터 공항만 심사까지,
전 직원이 출입국 업무 전반을 지휘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를 만나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할 일 많은 출장소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의 출입국 업무를 관할하는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이하 속초출장소)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관할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3,000여 명으로 많지 않은 편이지만 출입국·체류 관련 일반 민원부터 외국인 보호 업무, 양양공항의 출입국심사, 속초항, 속초항국제크루즈터미널의 선박심사 등 공항만 업무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출장소다. 여기에 국내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 출입경사무소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할 일이 많은 출입국사무소 중 하나다.

이렇듯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속초출장소의 직원은 총 11명. 직원 한 명당 담당하는 업무 분야가 2개 이상으로, 일인다역이 필수적이다. 특히 양양공항이나 속초항에는 상주 직원이 없고 속초출장소 직원이 비행, 선박 스케줄에 맞춰 출장 심사를 하고 있다 보니 새벽이나 야간, 주말 출근도 불가피한 상황. 다소 바쁜 근무 환경이지만 속초출장소의 장점은 무엇보다 단기간에 다양한 출입국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어 전반적인 시야 확장과 업무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3일, 속초출장소에 기쁜 소식이 들려 왔다. 속초의 명물 청초호가 보이는 자리에 속초범무합동청사가 새롭게 문을 연 것. 속초출장소는 청사 1층에 자리를 잡고 민원인들을 맞이하고 있다. 항만터미널 내에 있던 기존 사무실과 달리 신청사는 속초 중심지에 위치해 교통 편의성이 좋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되어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

속초출장소의 장점은 단기간에 다양한 출입국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어 전반적인 시야 확장과 업무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력과 친절로 민원 해소

속초출장소는 민원인들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최근 속초출장소의 가장 큰 성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확대를 추진한 것.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에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채용할 수 있는 업종이 한정되어 있는데, 지난 2월 속초시와 지역 수산가공업체가 속초출장소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을 수산가공업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속초에는 명태와 명란젓을 말려서 가공하는 업체가 많지만 극심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속초출장소는 수산가공업체들의 수요를 확인하고 발로 뚫은 결과, 수산가공업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불법체류자 고용 방지에도 기여하는 가시적인 성과였다. 또한 속초출장소 직원들은 매사 친절하고 적극적인 응대로 민원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속초는 수도권 못지않은 편리한 인프라를 자랑하면서도 아름다운 바다가 있어 은퇴 후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길 원하는 재외동포들이 많이 정착하는 도시다.



국적 회복을 위해 속초출장소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친절하게 응대하는 직원들에게 매번 음식이나 물건을 들고 와 고마움을 표현한다고 한다. 원칙상 거절할 수밖에 없지만, 인생의 중착점으로 속초를 택하고 도움을 청해오는 민원인들의 마음을 알기에 속초출장소 직원들 또한 감사함을 잊지 않으며 업무에 임하고 있다.

속초출장소의 원동력은 ‘끈끈함’

현재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속초출장소가 신청사로 무사히 이사를 마치기까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다. 기존 사무실 정리부터 신청사 사무실 구조를 직접 짠 것은 물론, 지역 택시기사들을 만나 신청사 이전 홍보 활동을 벌이는 등 세세한 업무까지 직원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일이 없었다. 고단한 일이었음에도 어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속초출장소 직원들의 끈끈함에 있다.

이민우 계장은 “업무를 하다 어려운 점이 생기면 지위를 막론하고 다 함께 협의하고, 잠잘 때 외에는 계속 붙어있으니 정말 가족 같은 사이”라며 “같들이 생기는 것은 오해가 있기 때문인데 저희는 정말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오해도 없고 갈등도 없다”고 강조했다.

신청사로 이전할 때 속초출장소 직원들이 가장 신경 쓴 부분도 사무실의 구조다. 서로 도와가며 다양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구조물이 시야를 가리지 않게 배치했고, 탕비실도 중앙에 두어 직원 간에 소통이 자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속초출장소가 지향하는 바는 “어디에서든 인정받는 것”이다. 다양한 업무를 익힘으로써 향후 인사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속초출장소에서 온 직원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을 얻는 것이다. 다른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근무하게 되더라도 제 몫을 다하는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원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속초출장소 직원들은 오늘도 서로 돕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Chief INTERVIEW

“출입국 행정서비스·출입국심사 아우르는 출장소”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
서봉희 소장

속초출장소는 속초·양양·고성을 관할하고 공항만 심사, 출입경 심사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업무 환경에 부담감은 있지만 모든 직원들이 의기투합해 체계적인 출입국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출입국 관련 민원은 물론 출입국심사, 보호 업무를 위해 밤낮없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INI INTERVIEW

우리 출장소의 자랑스러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OOOO 이다”



만물백화점

한 장소에서
모든 출입국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 김한석 팀장

언제나 맑음

든든한 선배님들과
항상 밝은 후배님들
덕분에 속초출장소는
'언제나 맑음'입니다!
· 신소정 계장



멀티플레이어

모든 직원들이
출입국의 모든
업무를 다루고 있어
'멀티플레이어'
같습니다.
· 이승준 반장



따뜻함

속초출장소는
따뜻함입니다.
직원과 민원인 사이에
정이 넘쳐
흐르기 때문이죠!
· 황유진 반장



매년 광복절이 되면 해방과 자유라는 단어가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올해도 광복절을 즈음하여 개최되었다. 스무 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롭게 출발한 국적증서 수여식 현장으로 가본다.

독립유공자 후손, _____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다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현장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

조국의 자유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망명, 강제이주 등의 이유로 인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수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해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하는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1,280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기존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함께 보유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지난 8월 11일,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개최된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는 독립유공자 11인의 후손 20명(카자흐스탄 9명·중국 9명·우즈베키스탄 1명·러시아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적증서 수여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모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堂堂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이 땅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독립유공자 후손 장호권 광복회장과 대한민국 특별공로 특별귀화자 1호 인요한 박사 또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함께 만들어가자”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당당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이순(耳順)이 지난 어르신부터 이제 막 걸음마를 댄 아기까지, 다양한 세대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증서 수여식이 진행되는 내내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독립운동가 계봉우 선생의 증손 계예두아르드 씨가 대표로 국민선서를 한 뒤, 한동훈 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한 명에게 국적증서를 직접 전달하고 축하 인사를 건네는 훈훈한 광경이 이어졌다. 이날 법무부 서포터즈 자격으로 참석한 SNS 기자단 대학생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수여식을 경청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국적증서 수여 후에는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로 불린 조명희 선생의 후손 김나탈리아 김파벨 씨, 그리고 대한광정단 부단장으로 독립투쟁에 진력한 강연상 선생의 후손 김유리 씨가 소감을 발표했다. 김나탈리아 씨는 "할아버지는 한 편의 영화처럼 파란만장한 생을 살다 역올하게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며 "위대한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끄럽지 않은 독립유공자 후손이 될 것"이라고 밝혀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김유리 씨는 "할아버지의 독립활동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여식은 참석자들이 다 함께 태극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깊은 여운에 젖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쉽사리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국적증서를 오래도록 바라보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되새겼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해외에서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찾아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수여식이 스무 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다는 자긍심을, 국민들에게는 조국을 위해 분골쇄신한 선조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꿈을 꿍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National Memorial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다목적홀
Multipurpose Hall

독립유공자 계봉우 선생 후손
계에두아르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된 국적 취득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대표로 국민선서를 한 계에두아르드 씨.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이자 국어·역사학자인 계봉우 선생이다.

1880년 함경남도 영흥에서 태어난 계봉우 선생은 신민회에 가입하여 구국운동을 전개하다 북간도로 망명해 국사, 국어를 가르치며 교과서 편찬을 주도했고,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북간도 대표위원으로 부임해 민족운동에 가담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어 교육과 역사서 저술에 힘쓰다 1937년 소련의 강제이주정책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후에는 1959년 작고할 때까지 모국어와 역사를 가르치며 한반도 주변 정세 및 망명 한인들의 삶에 대한 중요한 연구자료를 남겼다. 우리 정부는 계봉우 선생의 공적을 인정해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했다.

카자흐스탄 출신으로 2017년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계에두아르드 씨는 평소 증조할아버지의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대단한 일이란 것을 몰랐습니다. 2년 전에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네요.”

계에두아르드 씨는 이날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대표로 선서를 하게 되어 전날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만큼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설렘도 숨기지 못했다.

한국인으로서 꿈꾸는 미래

민족 대명절 추석을 한 달여 앞둔 국적증서 수여식 날, 계에두아르드 씨는 여느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고향에 있는 가족이 가장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적 취득을 통해 그리운 가족과 한국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당부했어요. 한국의 교육수준이나 생활환경이 좋으니까 하루빨리 아이들을 데려와 교육받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자랄 수 있게끔 하고 싶습니다.”

생계를 위해 찾았던 한국이지만 친절한 사람들과 안전함에 반해 정착을 꿈꾸게 되었다는 계에두아르드 씨. 통역사를 대동해 이야기를 나눈 그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는 대부분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된 만큼 한국어를 더 잘 구사하고 싶은 욕심이 크다고 했다. 그는 자신과 같은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의 고려인들에게 대한민국을 꼭 방문해볼 것을 강조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느낄 수 없었던 친절함을 느낄 수 있고, 노력한다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꼭 한 번 방문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독립유공자셨던 증조할아버지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어 대한민국 국민이 된 만큼, 앞으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KOREA TECHNICAL ABILITY

K-기술력이 꽃피운 세계의 랜드마크

서울타워, 에펠탑, 오페라하우스의 공통점은? 각 나라,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라는 것. 해외여행을 가면 꼭 방문하게 되는 세계의 랜드마크는 거대한 위용과 아름다운 건축미로 관광객들을 사로잡는다. 이러한 랜드마크 가운데 한국의 기술로 건설되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는 세계의 건축물들을 살펴보자.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세 개의 건물 위에 배가 떠있는 모습으로 유명한 종합 리조트 호텔이다. 건물의 기운 각도가 피사의 사탑의 10배에 해당하는 52도인데, 그 위에 6만 톤에 달하는 스카 이파크까지 올려야 해 설계를 맡은 건축가 모세 사프디도 성공 가능성을 장담하지 못했다는 후문. 초고난도의 건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건설업체가 착공 18개월 만에 골조 공사를 마쳤고, 2010년 개업해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163층, 828m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호텔, 주거시설, 사무용 공간 등으로 구성된 복합 시설이다. 초속 55m 바람과 진도 7.0의 강한 지진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사막의 꽃을 형상화한 외관에 이슬람 건축양식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 기업이 주요 시공사로 참여해 3일에 1층씩 올리는 층당 3일 기법을 동원, 최단 공기(工期) 수행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대만

타이베이 101

정식 명칭은 타이베이 금융센터지만 101층이라는 의미의 타이페이 101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2010년 부르즈 할리파가 개관하기 전까지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다. 역시 한국 건설업체에서 시공을 맡은 이 건물의 특징은 87층부터 92층 사이에 윈드 댐퍼라 불리는 660톤 규모의 거대한 추가 있다는 것. 이 추가 건물의 무게 중심을 잡아 태풍, 지진 등의 재해를 견디는 역할을 한다.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대표하는 88층 쌍둥이 빌딩으로, 41~42층 사이에 스카이라이프가 연결되어 있다.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이 건물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각각 빌딩 한 채씩 공사를 맡았다. 건설 당시 한국 기업이 일본보다 35일 늦게 착공했는데, 공기를 단축하는 셀프클라이밍 폼 공법을 사용해 일본보다 10일 먼저 공사를 완료하여 한국의 기술력과 '빨리빨리 문화'의 위용을 증명했다.

WORLD
MARK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은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을 발현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실내생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녹색 식물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홈가드닝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식물을 넘어 반려의 대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 '플랜테리어(Plant+Interior)'나 '식테크', '식명', '식물 집사' 등 반려식물과 관련된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베란다 등의 일부 공간에서 화초를 키우던 옛날과 최근의 홈가드닝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리 집에 숲 가꾸기 홈가드닝 트렌드

Home Gardening



홈가드닝의 진화? 반려식물족의 탄생!

숲길을 걸으며 기분이 상쾌해진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식물이 내뿜는 피톤치드가 우리 몸에 좋더라는 이야기도 흔하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식물과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은 긴장, 우울, 분노, 피로 등의 부정적 감정이 1/3 수준으로 줄어들고, 활력은 3배 정도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주거환경에 식물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잇따르며, 과거 베란다 등 한정적인 공간에 가능했던 가드닝을 실내 필요 요소로 자리매김하는 예도 등장했다. 국내 한 건설회사에서는 아파트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홈가드닝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구상해 넣기도 했다.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편의시설도 등장하고 있다. 반려식물이 아플 때 찾아가는 식물병원, 여행 중 반려식물을 맡길 수 있는 식물호텔이 그 예이다. 식물을 키우고 싶지만 애꿎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 망설여 그만둔 이들을 위해 식물 관리 전용 어플도 활성화되어 있다. '식물일기', '플랜피트', '반식이', '그루우' 등의 어플은 물과 분갈이 주기 알람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반려식물의 상태를 일기처럼 기록할 수 있어, 홈가드닝 초보에게 필수적인 어플이다.

베란다에 꾸미는 나만의 작은 정원

홈가드닝이 대체로 베란다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채광과 급수

북향 : 심플하고 모던한 정원



연중 햇빛의 양이 부족해
상록수림 등의 식물이 적합

추천 식물 맥문동, 죽백란, 식나무 등

남향 : 화려하고 다채로운 정원



햇빛의 양이 가장 많아 키울 수 있는
범위와 종류 다양

추천 식물 창문 앞쪽은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 안쪽은 낙엽수림 등

동향 : 부드럽고 여러여리한 정원



서향에 비해 서늘한 편으로,
덥고 건조한 것을 싫어하는 식물 추천

추천 식물 생달나무, 아이비, 백서향 등

서향 : 강하고 튼튼한 정원



낮 동안 기온이 상승해 습도가 낮기에
건조한 기후에 강한 식물이 적합

추천 식물 후피향나무, 돈나무, 호랑가시나무 등

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베란다 공간을 잘 활용하면 나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 수 있다.

공간을 확보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를 식물을 정하는 것이다. 식물에게 중요한 것은 햇빛, 물, 흙, 바람이다. 별이 잘 들지 않거나, 통풍이 잘 되지 않아도 괜찮은지 등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식물을 구해야 한다. 또한 식물을 구입할 때는 잎의 색이나 모양을 보고, 흙에 벌레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물에 친환경관리제를 주기적으로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베란다에 가드닝을 할 때에는 건물 하중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경량토를 사용해서 무게를 줄이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베란다 바닥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유실된 흙이 배수구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방수와 배수처리를 해야 하는데, 바닥에 원예

용 배수판을 깔거나 화분을 선반 위에 놓아 물이 고이지 않게 하면 된다.

공간이 좁을 경우에는 다양한 크기의 식물을 높낮이별로 배치하거나 상자, 의자 등의 소품을 활용하면 좋다. 거치형, 부착형 화분을 구해 매달거나, 작은 다육식물 등은 한 바구니에 모아 심기를 하면 인테리어 효과도 극대화된다.

홈가드닝은 계절이나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취미이기 때문에 온도, 습도 등도 신경 써야 한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화분을 실내로 옮기거나 냉해 방지를 위해 일주일마다 한 번 정도 따뜻한 날에만 물을 주는 것이 좋다. 특히 겨울에는 일조량이 적으므로 식물생장용 LED 조명을 켜주면 부족한 햇빛을 보충할 수 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나요?

첨단 정보기술로 빠르고 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 대한민국에 방문한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한 각종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자동출입국심사에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자동출입국심사는 사전에 등록된 여권정보와 지문, 얼굴 정보 등 바이오정보를 활용해 출입국심사를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심사관의 대면심사 대신 혼자서도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을 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등록과 거소신고를 한 만 17세 이상 외국인은 사전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만 사전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국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도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출입국심사가 가능한 공항만은 어디인가요?



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무안·양양국제공항과 인천항·부산항·평택항·군산항국제선여객터미널 등 12개 공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No.1 공존인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업무에서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공감인들.
공감인들이 민원인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가장 보람 있고, 자신 있어 하는 공감 노하우를 소개한다.



**최소 시간 · 최대
친절 · 최대 효율을
통한 배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
우창훈 주무관

외국인 아내의 비자 변경을 위해 방문했는데, 서류 준비가 미흡할까봐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우창훈 담당자님이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제가 미처 준비 못 한 서류들은 발급받도록 도와주셨고, 천천히 작성할 수 있게 기다려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님이 직무 능력이 뛰어나고 매우 친절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아내가 마음 편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동했습니다.

- 신○○ 씨

공감 노하우

저의 응대 노하우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원인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사무소에 방문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한번에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제출장소에는 저보다 친절하고 동료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대표로 칭찬받았다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전달이
곧 친절**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은경 주무관

저는 지인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요즘 습도도 높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하다 보니 오후쯤 되면 지치기 쉬운데, 신은경 주무관님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도 웃으며 친절을 베푸는 모습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신은경 담당자님 덕분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겼고 기분도 무척 좋았습니다.

- 박○○ 씨

공감 노하우

저의 공감 노하우는 '정확한 정보전달'입니다. 출입국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민원인들에게 평소 놓치기 쉬운 부분을 최대한 정확히 알려드리려 노력합니다. 민원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친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칭찬받은 덕에 더 힘내서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KIS NEWS

1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청계천 환경정화활동 봉사



아시아·미주·유럽 등 21개국 출신 이민자로 구성된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 9월 17일 서울 청계천 주변 일대에서 플로깅(환경정화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출신 귀화자 김유정 씨를 비롯한 총 27명의 멘토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법무부 직원들과 함께 청계천 일대를 걸으며 담배꽂초, 비닐류, 부유물 등 쓰레기를 수거했다.

* 한국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선배 이민자가 후배 이민자의 멘토가 되어 자신의 경험과 희망을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과 정착을 지원

법무부는 내·외국인 간 상호 소통을 돕는 이민자 멘토단의 봉사활동 정례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국민과 더욱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

법무부, 불법취업 외국인·브로커 집중 단속

법무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흥·마사지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과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등을 집중 단속하여 887명(외국인 642명·알선 브로커 11명·불법 고용주 234명)의 법 위반자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취업 유형인 사증면제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이 성매매 등 유흥업종에 취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법무부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서민 일자리를 침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를 이용한 불법택시 영업, 계절근로를 이탈한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3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K-ETA) 도입

법무부는 지난 6월 제주무사증 제도가 재개된 이래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이 제주도를 한국입국 우회경로로 악용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한 외국인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했다.

동 제도는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는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의 건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제주무사증(B-2-2) 국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제주무사증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신설 등 「국적법」 일부 개정

정부는 9월 15일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골자로 한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포하였다.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여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둔 사람이나,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둔 사람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 및 신속한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국민 국적 이탈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균형 있는 국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전면 개선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

9월 8일 정부는 관계부처(법무부·농식품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간 농촌에서는 농업인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지자체별 MOU 체결, 까다로운 고용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기초지자체 등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조기확대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인력매칭 및 홍보 기능 강화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EVENT #1 독자 의견

2022년 <공존> 가을호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 호를 읽고 기억에 남는 글이나 흥미로웠던 콘텐츠가 있다면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여 기간 2022년 9월 30일(금) ~ 10월 21일(금)

참여 방법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계정 or 유튜브 계정을 팔로우(구독)!
2. 페이스북 공존 이벤트 게시글 or 유튜브 <공존> 티저영상 게시물에 '좋아요'
3.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경품 이벤트

다양한 독자 의견을 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2022년 10월 26일(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세요

EVENT #2 퀴즈 타임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이름,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를 적어 이메일 또는 아래 QR코드를 접속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Q. 속초·양양·고성을 관할하며 출입국 행정서비스는 물론 공항만 출입국 심사, 출입경 심사까지 출입국 관련 업무를 모두 아우르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는 어디일까요?

- | | |
|---------|---------|
| ① 고양출장소 | ② 거제출장소 |
| ③ 군산출장소 | ④ 속초출장소 |

보내실 곳 아래 QR 코드 참여

정답 마감 2022년 10월 21일(금)

문의 법무부 출입국기획과(02-2110-4019)

**빠르고 간편한 독자퀴즈 참여 방법**

왼쪽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소식지에 관한 다양한 독자 의견과 퀴즈 정답을 남기면 참여 완료!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제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 신고 시 체류지 사무소 경유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 신고 후 출국

-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현행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신고도 허용

※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하여야 함

- 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는 각자 충족 필요

- 범칙금 부과 내용, 납부에 따른 입국금지 감면 등 안내 및 사범심사(납부) 시간 소요로 항공기 출발시간 4시간 전까지 공항만 사무소 방문

자진출국 신고하려는 외국인

